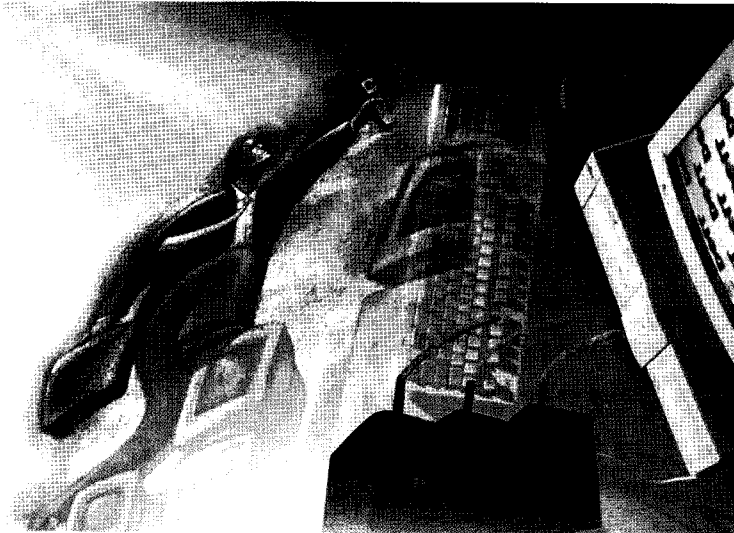


특별기고 / 지적재산



한국,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강국이 될 수 있다

원희룡 / 법무법인 춘추(春秋) 변호사

21세기 세계 경제의 화두는 지식기반 경제 체제(knowledge-based economy)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원은 부족한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에 가장 유리한 산업 분야가 바로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정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연히 소프트웨어 산업분야 국제 경쟁력의 배양은 요원해진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인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경제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이 이와 같은 지식기반 경제 체제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미국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자체 자료를 통해 “한국의 불법 복제율을 미국 수준으로만 낮춘다면 2001년까지 약3만여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고, 1조원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정도면 우리 국민들이 불법 복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이미 자명해진다.

기업이 많은 자원을 투입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응당한 대가 없이 유통된다면 개발업체는 파산할 수 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불법 복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불법 복제율을 보이고 있어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의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발표한 ‘1998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보고서(1998 Global Software Piracy Report)’에 따르면 1998년도 한국의 불법복제율은 64%이다.

1997년 우리나라의 불법 복제율은 67%였다. 1998년에는 그나마 3% 감소한 셈이다. 복제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미국(25%), 일본(31%)과 비교하면 아직도 두 배 이상이다. 이에 따라 업계의 손실액도 가히 어마어마하다. 우리나라는 1998년 불법복제로 인해 약 2천3백7십6억원(약1억9천8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 벤처기업 몇 백개를 세울 수 있는 액수이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에서 벤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개발한 제품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복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다.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자본력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할 때에 소요된 만큼의 대가를 거둬 들이지 못하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 복제가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장소는 인터넷과 PC통신망이다. 무료 혹은 유료 사이트에 프로그램을 올려 놓고 이용자들이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이나 PC통신망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복제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 복제로 적발되어 단속을 받게 되면 소속돼

있는 통신망의 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형사상 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각 통신망 운영회사가 자체적으로 감시 활동을 펴고 있고 BSA나 소프트웨어재산권위원회(SPC)도 철저히 동태를 살피고 있어 조만간 통신망에서의 복제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강제성을 띤 단속보다는 사용자들의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하다. 즉, 자율적으로 정품을 구입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우리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얼마나 큰 신규 채용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매일 목격하고 있다. 최근의 신문, 잡지를 보면 많은 소프트웨어 벤처기업들이 유능한 젊은 소프트웨어 인재를 구한다는 광고가 부쩍 늘고 있다. 더 나아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풍토가 정착된다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역으로 우리도 세계 각지로부터 분야별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개발자들을 기용하여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정품 사용이 조금씩 늘어 나면서 한글과컴퓨터,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등을 포함,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매출이 급속도로 신장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이 늘어나는 등 활기를 띠고 있어 정품 사용의 시너지 효과가 이미 우리 주위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이 업계나 국가경제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이미 여실히 목격하고 있는 셈이다. **KCRC**

불법복제 제품 유통 신고 :
불법 복제 전용전화(080-555-5556)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자료 관련 사이트 :
www.bsa.org, www.nopiracy.com

알면 힘이 되는 용어

!! 프론트로딩 방식의 착탈식 HDD

프론트로딩 하드디스크란 착탈버튼 하나로 PC본체 앞에서 하드디스크를 손쉽게 꺼냈다 넣었다 할 수 있는 디스크를 말한다. 현대의 PC에 여러개의 프론트로딩 하드디스크로 각각의 PC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OS(운영체제)사용에 있어서도 여분의 프론트로딩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경우, 여러가지 OS사용이 가능하여 한글윈도우95와 영문윈도우95, 또는 윈도우NT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활용할 수 있다.

!! PDF(Portable Document Format)

Adobe사에서 Postscript언어의 기반을 두고 개발된 PDF는 Portable Document Format의 약자로 윈도우나 매킨토시, 유닉스, OS/2 등 어떤 형태의 컴퓨터 시스템 환경에서도 원본 문서 형태로 읽거나 출력할 수 있는 유연한 전자문서 포맷이다. 원본 문서의 글꼴과 색상, 이미지,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체 압축기능을 통해 파일 크기를 최소화 시켜준다. PDF파일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인쇄하거나 전자 우편에 첨부하거나 네트워크 서버나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어디든지 전자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Deep Computing(심층컴퓨팅)

-97년 5월 체스챔피언을 항복시킨 IBM수퍼컴퓨터 딥 블루(Deep Blue)에서 시작된 용어이다. 강력한 성능의 병렬처리 컴퓨터와 고성능컴퓨팅에서 쓰이는 알고리즘을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비즈니스컴퓨팅에 활용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전산의 새로운 분야 즉, 수퍼컴퓨터 급의 전산처리와 다량의 전산, 복잡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결합되었다. 최근까지만 해도 정보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블루투스

-블루투스 기술은 모바일 컴퓨팅과 통신기기 상호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고 와이어나 케이블없이도 고속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또한 모바일 컴퓨터, 휴대폰 및 휴대용 단말기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게 한다. 최근 블루투스 & trade: SIG(bluetooth&trade:Special Internet Group)의 설립 업체인 인텔, 에릭슨, IBM, 노키아, 도시바가 블루투스 1.0 규격을 발표함에 따라 전세계 개발자들은 블루투스 기술을 지원하는 제품을 설계하고 제품 검증 및 상호운용성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 레이어4 스위칭

-데이터를 패킷 단위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우선 순위를 부여해 전송하여 레이어3 스위칭의 단점을 개선한 기술이다. 레이어4 스위칭 장비는 전송을 위해 대기중인 현재의 데이터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인가를 파악해 우선순위가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이는 곧 비동기 전송모드 기술의 최대 강점으로 표현되는 QoS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더넷 계열의 장비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

!! CMP/Cellular Multi Processing

-CMP(Cellular Multi-Processing)는 파티셔닝 및 클러스터링 기술을 포함한 대규모 대칭형 멀티프로세서(SMP)서버의 확장성은 물론 클러스터링 시스템의 고가용성까지 제공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CMP기술을 이용, 시스템을 32웨이 SMP시스템 하나로 구성하거나 혹은 클러스터 방식으로 최대 8개의 파티션으로 구성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고 운영을 간소화하는 한편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 기술은 여러 서버를 하나의 캐비닛에 통합, 복수 서버를 구성하므로 네트워크 구성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도입 및 관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 넷피스

-넷피스(Netfice)는 네트워크(Network)와 오피스(Office)의 합성어로 웹톱(Webtop)서비스 시대를 대표하는 신개념 서비스이다. 웹톱은 데스크탑(desktop) 환경이 인터넷으로 변화하면서 새롭게 부각된 개념. 현재 넷피스에서는 인터넷에서 접속해 문서작성 등 사무용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사이버 오피스 환경을 위한 웹캘린더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 백업서비스, 인터넷 팩스 서비스 등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는 인터넷에서 신규 문서 작성은 물론이고 한글문서나 MS워드/MS엑셀/MS프리젠테이션 등의 오피스 파일을 넷피스에서 불러와 작업을 할 수 있다.

정보제공: 심보컴퓨터, 한국어도비, 한국IBM, 인텔코리아, 허나로 통신, 한국유니시스, 한글과 컴퓨터